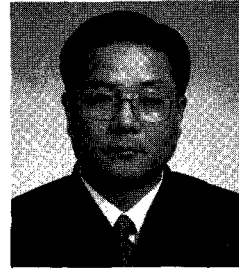


# 시설자동화와 효율적인 자금활용 방안



송진희

- 파스코 대표
- 교와기계한국판매원

**최** 근 축산분야도 대형화 기업축산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투자의 합리적 판단 측면에서는 과거의 소규모 축산영농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가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다보면 투자규모의 판단 착오나 투자여력 즉 현금의 활용이나 부동산의 담보활용이 미숙하여 대다수의 양축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있는 경우를 목격하였기에 본고에서는 개략적이거나 투자에 앞서 고려되어야 할 몇가지 유의점을 소개함으로써 양축농가의 어려움을 덜고자 한다.

## 1. 투자범위와 합리성 판단

신규 또는 자동화 개선 투자를 할 때 대부분의 양축농가에서는 단순히 투자비에 대한 고려없이 자동이나 수동이나 하는 판단으로 인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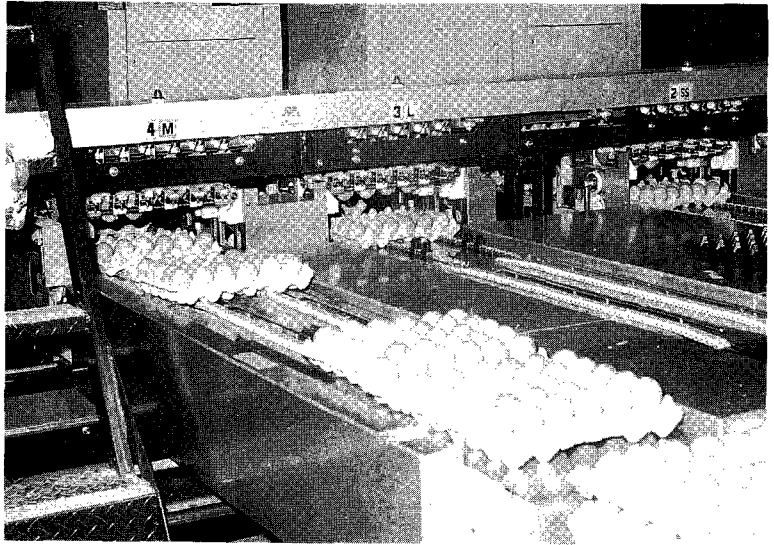
이 불필요한 완전 자동화를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굉장히 위험한 함정이며 과잉투자를 초래하는 판단방식이다.

설비투자를 통한 자동화의 판단은 경영분석에서 복잡한 이론과 정밀한 분석으로 판단하지만 양축농가에서 이를 적용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최소한의 판단 기준이라도 없다면 과잉투자를 초래할 것이다.

축산농가의 자동화 투자의 판단 요소는 인건비의 절감, 작업자 공급의 난이도, 제품 즉 계란의 상품성 향상 등을 들 수 있으며, 이중 인건비 절감으로 투자비를 절감하는데 3년 이상이 소요된다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3,000만원의 난좌공급기를 설치하여 연봉 700만원인 1명의 인원만 절감한다면 투자회수에 4년 이상이 소요되므로 자동화의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농장이 대부분 인가와 떨어져 있으므로 작업자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소비자가 요구하는 패턴(위생란의 요구나 포장의 고급화)의 변화가 있으면 투자 회수기간에 관계없이 자동화 투자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동화에 대한 맹신을 버리고 농가의 실정이나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자동화의 범위를 검토해야 한다.



## 2. 투자설비의 합리적 선택

현재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자동화 설비 공급업자의 수는 우리나라의 양계산업 규모에 비해 공급 과잉의 상태이다.

일본의 경우 양계규모는 한국에 비해 3배 이상이지만 오히려 설비의 공급업자는 절반정도 수준이다.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다양한 설비에서 고를 수 있다는 측면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설비에 대한 객관적 비교 분석이 되어 있지 못해 선택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해외 모회사의 케이지는 품질이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지만 한국 대리점의 영업력 부진으로 국내에 거의 보급되지 못하고 있다. 설비의 품질보다는 영업력으로 좌우된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어떠한 설비라 하더라도 장단점이 있으므로

투자 대상인 설비에 관한 정보를 관련 전시회 방문 또는 설비된 농장을 방문하거나 협회를 통하여 충분히 입수하여 나름대로 비교 항목을 설정하고 꼼꼼히 비교분석하여 결정하는 합리적 판단이 필요하다. 자동화 설비는 고가이며 장기간 사용하여야 하므로 잘못된 판단은 두고두고 골치거리로 되거나 농장의 부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밀한 비교 분석과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 3. 금융기관과 투자여력의 합리적 운용

자금 여유가 있는 양축농가에서는 간혹 “수입설비를 현금으로 구매하였다.”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된다. 물론 자금 여유가 있다면 부채를 지지 않고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도 본다. 하지만 결코 현명한 방법은 되지 못한다. 부채라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예입이자 보다는 낮은 금융방법을 이용하거나 현금을 다른 각도

로 이용한다면 투자계획대비 재원을 여유있게 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양축농가가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주로 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 자금이며, 이는 축협을 통하여 지원되므로 이 방법은 대체로 잘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아울러 병용하는 것이 리스회사를 이용하는 것이다. 리스회사는 10여개의 회사가 있으며 리스회사마다 이자의 적용효율도 틀리고 제공하는 담보의 정도에 따라서도 이자율이 다르며 특히 요즈음과 같은 금융위기의 상황에서는 외환동원 능력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 양축농가는 주로 설비 공급자가 추천하는 리스회사와 거래를 하게되는데 이때 리스회사의 신용도, 외환동원능력, 상환조건, 이자율, 담보 요구조건 등을 세심히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투자는 대개 이어지므로 향후의 설비 투자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마쳐야 한다.

설비 공급자가 추천을 하지만 결국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게되므로 최종선택도 본인이 하여야 한다. 연속적인 투자를 하여야 한다면 동일한 리스회사와 지속적인 거래를 하는 것이 담보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쉬운 예로 동일한 리스회사를 이용하면 케이 지 구입시 감정평가액 5억의 '가' 담보물을 이용하여 3억을 설정하였다면 '가'의 평가액 5억 중 3억 설정분을 제외한 2억의 가용액으로 선별기를 구입할수 있지만, 다른 리스회사라면 '가'의 담보가용액은 설정분이 이미 50% 이상의 신선통이 있으므로 후취담보가 되어 담보로서 가치가 없어 다른 담보물을 제공하지 않으면 안된다.

#### 4. 금융기관의 이용

자동화 투자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이용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양축농가가 이용하는 금융기관으로는 정부 지원자금을 주선하는 축협이나 농협과 시중은행, 리스회사, 보증보험 등이 있으며 양축농가에서 리스회사를 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리스회사와 보증보험 및 담보설정에 관해 설명하기로 한다.

양축농가와 설비 공급자가 구매 계약을 리스회사와는 리스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적정의 담보나 보증보험 증서를 리스회사에 제출하면 리스회사는 설비를 구매하여 약정기간동안 양축농가에 설비를 임대하게 되며 약정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되면 설비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된다. 이것은 설비를 리스로 이용하는 방법의 개략을 설명한 것이지만 이용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하겠다.

리스회사는 설비를 설비가액의 30~50% 정도를 담보로 하고 50~70% 정도를 부동산 담보나 보증보험 증서를 요구한다. 다행히 부동산 담보가 가능한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보증보험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금융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편리하다.

물론 일반 이용자가 직접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는 보증보험회사의 요구수준이 높아 이용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말 그대로 문턱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경우는 자체에서 신용과 사업성을 평가하여 보증보험증서를 청구하므로 신뢰관계가 어느정도 형성되어 있어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양개**